

## 사회과 교사의 배경이 경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장경호(인하대학교)  
한경동(한국외국어대학교)  
김경모(경상대학교)과

###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 2. 분석방법
- III. 사회과 교사의 배경과 경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성별, 연령, 교직경력, 학교가 위치한 도시 규모, 경제학 이수 학점, 출신 학과 등의 배경이 경제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교육협회가 수행한 2007년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고등학교에서 경제 관련 단원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의 담당 과목, 수업 동기,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단원 등이 사회과 교수의 배경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출신 학과에 따라 사회과 교사가 수강한 경제 과목 수에 차이가 있었다. 경제 관련 학과 출신 사회과 교사는 대부분 3개 이상의 경제 과목을 수강하였으나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닌 교사 중 대다수는 기껏해야 한 두 개의 경제 과목을 수강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출신 학과에 따라 담당하는 과목이 다른 경향을 보였다. 경제 관련 학과 출신 사회과 교사는 [경제] 과목을 학부 전공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담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닌 교사는 본인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교사 간 수업 시수 배분 과정의 결과로 [경제] 수업을 담당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닌 교사가 [경제]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 과목을 충분히 수강하지 못해 경제 이해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교사가 경제 과목을 기피한다는

---

1) 교신저자(kmkim@gnu.ac.kr)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여교사가 [사회] 과목을 더 담당하지만 [경제] 과목을 담당하는 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어:** 경제교육 실태조사, 중등교육, 사회과 교사, 로짓분석

## I. 서론

사회과 교사의 경제학적인 소양은 학교 경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냥 지켜볼 정도로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교육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사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의 91%, 중학교 사회과 교사의 75% 가량이 대학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고등학교 [경제] 담당 교사의 20%조차도 경제학을 거의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경제교육협의회, 2007, p. 10). 이와 같은 결과는 허인숙 등(2005)이 초·중·고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28.0%가 대학에서 경제학 관련 과목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쉬하르트와 와츠(Bosshardt and Watts, 2005)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도 중등학교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교사의 평균 이수 경제학 과목 수는 2.32 과목이었으나, 이 중 경제학 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교사의 비율도 3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도 과목에 상관없이 교사가 되려면 경제학의 기초 과목 하나를, 사회 과목을 지도하려면 적어도 경제학 과목 셋을, 그리고 경제를 지도하려면 적어도 여섯 과목의 경제학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Hermanowicz, 1991)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과 교사나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 의식이나 의견을 설문 조사한 연구로는 앞에서 언급한 허인숙 등(2005)과 함께 최병모 등(2005),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등을 들 수 있다. 허인숙 등(2005)은 '대학 시절과 연수 과정에서 이수한 경제 관련 과목에 대한 내용',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경제현안에 관련된 내용',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정보소양 능력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서의 경제소양에 관련된 내용' 등 총 42문항에 대해 초·중·고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553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최병모 등(2005)은 직무연수와 부전공연수 중인 사회과 교사 155명을 대상으로 '세계화·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의식 및 의견에 대한 20문항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2006)도 초·중등교원 2,743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인식, 학교 경제교육에 현황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회과 또는 경제 교육 담당 교사의 경제 인식이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경제 현황에 대한 의견이나,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 실태 등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신학과 등과 같은 사회과 경제 교사의 배경이 학교 경제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에 대한 사회과 교사들의 지식이나 태도가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경제학을 수강한 과목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교육에 보다 효과가 높다는 지적이다. 보쉬하트와 와츠(Bosshardt and Watts, 1990)는 약 6과목의 경제학을 수강한 교사가 지도한 학생의 경제 성적이 평균 3.4과목 또는 평균 이하인 2.3과목을 수강한 교사가 지도한 학생의 경제 성적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했다. 또한 올군과 왈스타드(Allgood and Walstad, 1999)는 6과목의 경제학을 수강한 이후에 경제학을 지도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경제 이해력이 가장 크게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이들 교사의 경제 이해력은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메를린(Marlin, 1991)은 교사의 경제 수업에 대한 태도(attitude)도 학생의 경제 이해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경제 수업에 열의를 가진 교사가 지도한 학생이 경제 이해력 점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이다. 딜스와 플레이콘(Dills and Placone, 2008)에서는 교사의 경제 수업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구분하여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사의 교원자격증 취득 학과 등과 같은 배경이 경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사의 출신 학과에 따라 교사들이 담당하는 과목, 담당하게 된 동기, 수업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단원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교사가 교원자격증 취득 배경에 따라 경제 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교육과 관련한 교원 양성 과정 체제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 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경제교육협의회(2007)가 전국 1,493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제 영역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역, 설립유형, 계열 등을 고려한 층화표본추출법을 통해 추출되었고 조사방법은 한국개발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화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사회]의 경제관련 단원이나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들,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를 개설하지 않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사회]의 경제관련 단원을 담당하는 682명의 고등학교 교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고등학교 교사의 성별, 연령, 지역 크기, 계열, [경제] 과목 선택 여부, 경제 교육 경력에 따른 구분은 <표II-1>과 같다.2)

**<표II-1> 고등학교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구분		교사수	비율
성별	남	415	60.9%
	여	266	39.0%
	무응답	1	0.1%
연령	20대	100	14.7%
	30대	205	30.1%
	40대	261	38.3%
	50대	115	16.9%
	무응답	1	0.1%
지역 크기	대도시	269	39.4%
	중도시	309	45.3%
	소도시 이하	104	15.2%
계열	일반계열	449	65.8%
	특목고	17	2.5%
	전문-상업계열	85	12.5%
	전문-비상업계열	131	19.2%
경제선택여부	선택	308	45.2%
	비선택	243	35.6%
	무응답	131	19.2%
경제교육경력	5년 이하	333	48.8%
	5년 초과	343	50.3%
	무응답	6	0.9%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p. 28).

2) 조사 대상 교사에 대한 자세한 특징은 경제교육협의회(2007)를 참조.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성별, 연령, 교직경력, 학교가 위치한 도시 규모, 경제학 이수 학점, 출신 학과 등의 배경에 따라 경제 단원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의 담당 과목, 수업 동기,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단원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출신 학과를 일반/공통사회교육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경제 관련 학과와 그 외의 학과로 분류하였다.<sup>3)</sup>

다음으로 위에서 분류한 교사의 출신 학과에 따라 담당 과목, 수업 담당 동기, 수강한 경제 과목 수, 수업하기 어려운 단원 및 그 이유 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chi^2$  분석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배경 요인에 따른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출신 학과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교직 경력, 도시규모, 수강한 경제 과목 수 등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이 경제 관련 담당 과목 여부, 담당 동기,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및 교과서 분량에 대한 의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로짓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log \frac{p_i}{1-p_i} = \beta_0 + \sum_{i=1}^k \beta_i x_i + \epsilon_i$$

위 식에서  $p_i$ 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확률을 의미하고  $x_i$ 는 교사의 배경을 나타낸다. 교사의 배경으로는 성, 연령, 교직경력, 도시규모, 경제 관련 과목 이수 학점, 출신 학과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로짓분석은  $\chi^2$  분석을 이용한 개별적인 요인 분석에 비해 각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Ⅲ. 사회과 교사의 배경과 경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심화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한 비율을 보면 <표Ⅲ-1>과 같다.

우선, 사범대학의 경우 [경제]를 선택한 학교에서 일반사회교육과 출신의 비율이 74.1%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64.0%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

3) 경제관련학과 분류 기준은 <표Ⅲ-2>의 주를 참조.

에는 경제학과 출신의 비율이 43.4%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30.4%보다 높았고 교육대학원과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도 일반사회교육과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표Ⅲ-1>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와 경제 선택 여부

		선택		비선택	
		교사수	비율	교사수	비율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149	74.1%	96	64.0%
	역사교육과	7	3.5%	4	2.7%
	지리교육과	9	4.5%	15	10.0%
	공동사회교육과	7	3.5%	6	4.0%
	기타	29	14.4%	29	19.3%
	소계	201	100.0%	150	100.0%
일반대	경제학과	53	43.4%	28	30.4%
	법학과	7	5.7%	9	9.8%
	행정학과	19	15.6%	16	17.4%
	사회학과	11	9.0%	9	9.8%
	사학과	2	1.6%	3	3.3%
	지리학과	1	.8%	2	2.2%
	기타	29	23.8%	25	27.2%
	소계	122	100.0%	92	100.0%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과	29	64.4%	35	61.4%
	역사교육과	1	2.2%	3	5.3%
	지리교육과	0	.0%	3	5.3%
	공동사회교육과	4	8.9%	3	5.3%
	기타	11	24.4%	13	22.8%
	소계	45	100.0%	57	100.0%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현재 담당 과목은 <표Ⅲ-2>와 같다. 우선, [고등학교 사회]의 경우에는 경제 관련 학과를 나온 교사보다는 기타 학과를 나온 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의 경우에는 경제 관련 학과를 나온 교사의 비율이 기타 학과를 나온 교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경제, 상업경제, 국제경제의 경우에는 출신학과에 따른 담당 과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Ⅲ-2>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현재 담당 과목

	출신 학과				X <sup>2</sup> (1) 검정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고등학교 사회	295	61.3%	142	70.6%	5.34 <sup>*ab</sup> (.021)
경제	179	37.2%	38	18.9%	21.90 <sup>**</sup> (.000)
생활경제	27	5.6%	12	6.0%	.03(.855)
상업경제	45	9.4%	13	6.5%	1.52(.218)
국제경제	0	.0%	2	1.0%	4.80*(.028)
기타	87	18.1%	37	18.4%	.01(.921)

- 주 1) 복수 응답  
 2) 경제 관련 학과는 일반/공통사회교육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회계정보, 상업교육과, 상업정보학과 등을 포함함.  
 3) X<sup>2</sup>( ) : ( ) 안의 수는 자유도를 의미함.  
 4) 괄호 안은 p-값임.  
 5) \*, \*\*는 각각 5%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6) a는 기대빈도가 5 미만인 항목이 전체의 20%를 넘어서기 때문에 검정결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7) b는 기대빈도가 0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검정결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경제 관련 수강 강좌수를 살펴보면 <표Ⅲ-3>과 같다.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의 교사 중 55.3%가 경제 관련 강좌를 5과목 이상 수강한 반면 기타 학과 출신의 교사 중 53.7%는 1-2과목을 수강하는 데 그쳐 학과별 경제 관련 수강 강좌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경제 관련 과목을 2과목 이하로 수강한 교사의 비율이 전체의 28.3%에 달하고 있는 점도 경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Ⅲ-3>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경제 관련 수강 강좌 수

	출신 학과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전체	
0과목	4	.8%	21	10.4%	25	3.7%
1-2과목	60	12.5%	108	53.7%	168	24.6%
3-4과목	151	31.4%	46	22.9%	197	28.9%
5과목	266	55.3%	26	12.9%	292	42.8%
X <sup>2</sup> (3) 검정, p-값	196.70 <sup>**a</sup> (.000)					

주: <표Ⅲ-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경제 관련 수업을 담당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표Ⅲ-4>와 같다. 출신 학과나 자신의 의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교사 간 수업 시수 배분 과정에서 경제 관련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는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의 교사는 학부 전공과 일치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으나 기타 학과 출신의 교사는 경제 관련 과목을 담당할 자격이 많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학과별로 경제 관련 수업을 담당하게 된 동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Ⅲ-4>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경제 관련 수업 담당 동기

	출신 학과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경제 관련 과목을 담당할 자격이 많으므로	28	6.5%	20	11.6%
경제 수업에 자신이 있어서	31	7.1%	18	10.5%
학부 전공과 일치하여	176	40.6%	17	9.9%
교사 간 수업 시수 배분 과정에서	199	45.9%	117	68.0%
$\chi^2_{(3)}$ 검정	53.84 <sup>**</sup> (.000)			

주: <표Ⅲ-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수업하기 어려운 단원을 살펴보면 <표Ⅲ-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사회]와 [경제] 과목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국제 거래에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생활경제와 상업경제에서는 자산관리와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수업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수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단원의 이유는 <표Ⅲ-6>과 같다. [고등학교 사회]의 경우 학과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든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제 관련 학과 출신 교사는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든 반면 기타 학과 출신 교사는 적절한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경제]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고 [생활경제], [상업경제] 및 [국제경제]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표III-5>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수업하기 어려운 단원

과목	단원	출신 학과				X <sup>2</sup> 검정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고등학교 사회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85	27.6%	47	35.3%	X <sup>2</sup> <sub>(3)</sub> = 4.79 (.091)
	현대 경제문제와 해결방안	83	26.9%	40	30.1%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	140	45.5%	46	34.6%	
경제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7	4.0%	1	2.3%	X <sup>2</sup> <sub>(4)</sub> = .81 (.937)
	시장과 경제 활동	26	14.9%	8	18.6%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32	18.3%	7	16.3%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37	21.1%	8	18.6%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73	41.7%	19	44.2%	
생활경제	일상 생활과 경제	2	6.1%	0	.0%	X <sup>2</sup> <sub>(6)</sub> = 8.26 <sup>ab</sup> (.219)
	경제 정보의 활용	1	3.0%	3	20.0%	
	가계와 소비 생활	8	24.2%	1	6.7%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 관리	11	33.3%	8	53.3%	
	고용과 직업 생활	8	24.2%	2	13.3%	
	기업과 창업 활동	1	3.0%	0	.0%	
	국제화와 경제 생활	2	6.1%	1	6.7%	
상업경제	경제 활동과 상업	1	2.3%	1	6.7%	X <sup>2</sup> <sub>(4)</sub> = 1.75 <sup>ab</sup> (.782)
	유통 경제	8	18.6%	3	20.0%	
	금융	19	44.2%	5	33.3%	
	정보 통신	7	16.3%	4	26.7%	
	국제 경영과 국제 경제	8	18.6%	2	13.3%	
국제경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제 경제 활동	0	.0%	0	.0%	X <sup>2</sup> <sub>(4)</sub> = 3.27 <sup>ab</sup> (.351)
	국제 교역 체제의 변동과 대응	1	9.1%	1	14.3%	
	국제 통화 체제의 변화	5	45.5%	5	71.4%	
	국제 경쟁과 기업의 국제화	1	9.1%	1	14.3%	
	한국 경제의 과제와 전략	4	36.4%	0	.0%	

주: <표III-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교과서 분량에 대한 의견은 <표III-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교과서의 분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등학교 사회]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분량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보다 많은 반면 [경제]를 비롯한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교과서 분량에 대해 교사의 출신

학과별로 차이를 보인 것은 [고등학교 사회의 경우뿐이었다.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의 경우 기타 학과 출신에 비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단원의 분량이 적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Ⅲ-6>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수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단원의 이유

	고1 사회				경제				생활경제				상업경제				국제경제			
	경제관 련학과		기타 학과		경제관 련학과		기타학 과		경제관 련학과		기타학 과		경제관 련학과		기타학 과		경제관 련학과		기타학 과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74	24.0	17	12.8	39	25.5	10	25.6	6	17.1	2	12.5	8	14.8	2	11.8	2	16.7	1	14.3
본인의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14	4.5	17	12.8	17	11.1	6	15.4	6	17.1	3	18.8	7	13.0	3	17.6	2	16.7	0	.0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져서	36	11.7	15	11.3	29	19.0	8	20.5	5	14.3	0	.0	5	9.3	0	.0	0	.0	2	28.6
적절한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하여서	49	15.9	21	15.8	33	21.6	7	17.9	3	8.6	3	18.8	6	11.1	4	23.5	1	8.3	1	14.3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맞지 않아서	76	24.7	39	29.3	2	1.3	0	.0	8	22.9	2	12.5	17	31.5	5	29.4	4	33.3	1	14.3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아서	50	16.2	18	13.5	25	16.3	7	17.9	6	17.1	5	31.3	8	14.8	1	5.9	2	16.7	1	14.3
기타	9	2.9	6	4.5	8	5.2	1	2.6	1	2.9	1	6.3	3	5.6	2	11.8	1	8.3	1	14.3
$\chi^2_{(6)}$ 검정	16.57 <sup>**</sup> (.011)				1.74 <sup>ab</sup> (.942)				5.36 <sup>ab</sup> (.499)				4.82 <sup>a</sup> (.568)				5.53 <sup>ab</sup> (.477)			

주: 1) <표Ⅲ-2>의 주 2~7 참조.  
2) 각 항목의 첫 번째 열은 교사 수를, 두 번째 열은 비율을 나타냄.

<표Ⅲ-7>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교과서 분량에 대한 의견

	고1 사회				경제				생활경제				상업경제				국제경제			
	경제관 련학과		기타 학과		경제관 련학과		기타학 과		경제관 련학과		기타학 과		경제관 련학과		기타학 과		경제관 련학과		기타학 과	
매우 많다	7	2.5	6	4.3	11	6.4	1	2.9	1	4.3	0	.0	1	2.3	0	.0	0	.0	0	.0
많다	35	12.3	14	10.1	42	24.4	7	20.0	9	39.1	4	40.0	10	23.3	2	16.7	1	100	0	.0
적절하다	113	39.6	76	55.1	86	50.0	21	60.0	12	52.2	6	60.0	27	62.8	6	50.0	0	.0	2	100
적다	113	39.6	36	26.1	30	17.4	6	17.1	1	4.3	0	.0	4	9.3	4	33.3	0	.0	0	.0
매우 적다	17	6.0	6	4.3	3	1.7	0	.0	0	.0	0	.0	1	2.3	0	.0	0	.0	0	.0
$\chi^2_{(4)}$ 검정	11.70 <sup>**</sup> (.020)				2.04 <sup>ab</sup> (.728)				.95 <sup>ab</sup> (.814)				4.73 <sup>ab</sup> (.317)				3.00 <sup>ab</sup> (.083)			

주: 1) <표Ⅲ-2>의 주 2~7 참조.  
2) 각 항목의 첫 번째 열은 교사 수를, 두 번째 열은 비율을 나타냄.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수업에 사용하는 보조 자료는 <표Ⅲ-8>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 자료는 교사용 지도서와 참고서 및 문제집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제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표Ⅲ-8>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수업 보조 자료

	주로 참조하는 자료 1순위				주로 참조하는 자료 2순위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교사용 지도서	123	25.8%	67	33.8%	30	6.4%	13	6.6%
참고서 및 문제집	142	29.8%	55	27.8%	70	15.0%	38	19.3%
신문 및 잡지	41	8.6%	17	8.6%	72	15.4%	38	19.3%
경제 관련 도서	40	8.4%	11	5.6%	58	12.4%	22	11.2%
경제학 관련 전문 서적	58	12.2%	18	9.1%	58	12.4%	23	11.7%
경제 관련 인터넷 사이트	33	6.9%	18	9.1%	100	21.4%	29	14.7%
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	0	.0%	0	.0%	12	2.6%	6	3.0%
경제교육 유관 단체의 자료	13	2.7%	2	1.0%	24	5.1%	12	6.1%
에듀넷 등 교육용 사이트	19	4.0%	8	4.0%	24	5.1%	10	5.1%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제작한 자료	5	1.1%	2	1.0%	11	2.4%	3	1.5%
기타	2	.4%	0	.0%	9	1.9%	3	1.5%
$\chi^2_{(10)}$ 검정	9.62 <sup>ab</sup> (.382)				7.21 (.706)			

주: <표Ⅲ-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교과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표Ⅲ-9>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은 본문의 가독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읽기자료 및 탐구활동을 들었다.

<표Ⅲ-9>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교과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교과서 중요사항 1순위				교과서 중요사항 2순위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본문의 가독성	199	41.8%	87	44.4%	40	8.6%	20	10.5%
삽화 또는 그림	29	6.1%	16	8.2%	48	10.4%	21	11.0%
읽기자료 및 탐구활동	141	29.6%	60	30.6%	181	39.1%	72	37.7%
경제 관련 데이터	104	21.8%	31	15.8%	145	31.3%	54	28.3%
인쇄 품질	0	.0%	0	.0%	19	4.1%	11	5.8%
기타	3	.6%	2	1.0%	30	6.5%	13	6.8%
$\chi^2_{(5)}$ 검정, p-값	3.95 <sup>*</sup> (.413)				1.86 (.869)			

주: <표Ⅲ-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주요 수업 방법을 살펴보면 <표Ⅲ-10>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과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쓰는 수업 방법은 설명식 수업이었고 다음으로는 인터넷과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이 많았다.

**<표Ⅲ-10>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주요 수업 방법**

	가장 많이 쓰는 교수법 1순위				가장 많이 쓰는 교수법 2순위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설명식 수업	412	86.7%	177	90.8%	33	7.1%	8	4.2%
토론 및 토의 수업	15	3.2%	8	4.1%	80	17.3%	44	23.2%
시뮬레이션 수업	4	.8%	0	.0%	16	3.5%	9	4.7%
역할놀이	1	.2%	1	.5%	9	1.9%	5	2.6%
인터넷·신문 활용 수업	35	7.4%	8	4.1%	246	53.1%	95	50.0%
모둠학습 협동학습	6	1.3%	1	.5%	38	8.2%	16	8.4%
기타	2	.4%	0	.0%	41	8.9%	13	6.8%
$\chi^2_{(6)}$ 검정, p-값	6.54 <sup>ab</sup> (.365)				6.07 (.415)			

주: <표Ⅲ-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주요 정규 교사 방법을 살펴보면 <표Ⅲ-11>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과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쓰는 정규 교사 방법은 다지선다형 문제였고 다음으로는 단답형 문제가 많았다.

**<표Ⅲ-11>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주요 정규 교사 방법**

	가장 많이 쓰는 평가방법 1순위				가장 많이 쓰는 평가방법 2순위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다지선다형	449	94.7%	187	94.9%	6	1.5%	2	1.2%
진위형	7	1.5%	2	1.0%	52	12.7%	27	16.3%
단답형	10	2.1%	3	1.5%	218	53.4%	98	59.0%
서술형	6	1.3%	2	1.0%	103	25.2%	32	19.3%
기타	2	.4%	3	1.5%	29	7.1%	7	4.2%
$\chi^2_{(4)}$ 검정, p-값	2.81 <sup>a</sup> (.591)				5.16 (.272)			

주: <표Ⅲ-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주요 수행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표Ⅲ-12>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과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쓰는 수행 평가 방법은 보고서였고 다음으로는 교사가 제작한 수행 평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Ⅲ-12>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학과별 수행 평가 방법

	가장 많이 쓰는 평가방법 1순위				가장 많이 쓰는 평가방법 2순위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보고서	196	41.8%	82	42.7%	91	21.2%	39	23.2%
포트폴리오	41	8.7%	14	7.3%	58	13.5%	16	9.5%
NIE학습지	36	7.7%	9	4.7%	71	16.5%	34	20.2%
교사가 제작한 수행평가지	172	36.7%	71	37.0%	108	25.1%	41	24.4%
스크랩 만들기	15	3.2%	11	5.7%	55	12.8%	22	13.1%
기타	9	1.9%	5	2.6%	47	10.9%	16	9.5%
$\chi^2_{(5)}$ 검정	4.68 (.456)				2.98 (.702)			

주: <표Ⅲ-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출신 대학/학과별로 2006년 이후 학교 밖 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면 <표Ⅲ-13>과 같이 경제 관련 학교 출신의 교사의 참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Ⅲ-13> 학교 밖 경제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가장 많이 쓰는 교수법 1순위			
	경제 관련 학과		기타 학과	
있다	87	18.4%	30	15.2%
없다	385	81.6%	168	84.8%
$\chi^2_{(1)}$ 검정	1.04 (.307)			

주: <표Ⅲ-2>의 주 2~7 참조.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에 따른 경제 관련 담당 과목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는 <표Ⅲ-14>와 같다. [고등학교 사회]는 교직경력이 짧을수록, 경제 관련 과목 이수학점이 적을수록 담당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난 반면 [경제]는 대도시일수록, 경제 관련 과목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일수록 담당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생활경제] 담당여부는 교사의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상업경제]는 교직경력이 길수록, 경제 관련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Ⅲ-14>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에 따른 경제 관련 담당 과목에 대한 로짓 분석

	성	연령	교직경력	도시규모	이수 학점	출신 학과
고등학교 사회	0.042	0.171	-0.210**	-0.246	-0.319***	-0.139
경제	-0.012	-0.046	0.015	0.208*	0.413***	0.529**
생활경제	-0.454	0.100	0.340	-0.026	0.345	-0.365
상업경제	-0.519	-0.377	0.609***	-0.264	0.442**	0.020
국제경제	7.835	2.667	-1.729	0.885	-0.087*	-773.303

- 주 1) 계수가 (+)일 경우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직경력이 길수록, 대도시일수록, 이수 학점이 많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일수록 해당 지표에 해당함을 의미.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에 따른 경제 관련 담당 과목 담당 동기에 로짓 분석 결과는 <표Ⅲ-15>와 같다. 우선, 교직 경력이 길수록,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닐수록 경제 관련 과목을 담당할 경력이 많아서 경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닐 경우에는 경제 수업에 자신이 있어서 경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소도시일수록, 경제 관련 과목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일수록 학부 전공과 일치하여 경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이수학점이 적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닐수록 교사 간 수업 시수 배분 과정에서 경제 수업을 담당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표Ⅲ-15>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에 따른 경제 관련 수업 담당 동기에 대한 로짓 분석

	성	연령	교직경력	도시규모	이수학점	출신학과
경제 관련 과목을 담당할 경력이 많으므로	-0.00	0.09	0.36*	0.36	0.65***	-1.15***
경제 수업에 자신이 있어서	0.01	-0.00	-0.02	0.22	0.30	-0.67*
학부 전공과 일치하여	-0.22	0.37**	-0.03	-0.38***	0.55***	1.38***
교사 간 수업 시수 배분 과정에서	0.29	-0.35**	-0.01	0.21*	-0.38**	-0.37*

- 주 1) 계수가 (+)일 경우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직경력이 길수록, 대도시일수록, 이수 학점이 많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일수록 해당 지표에 해당함을 의미.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에 따라 경제 관련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는 <표Ⅲ-16>과 같다. [고등학교 사회], [경제]와 [상업경제]의 경우 교사의 배경과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생활경제] 및 [국제경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등학교 사회]의 경우 대도시일수록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여성일수록, 이수 학점이 적은 교사일수록 본인의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다는 이유를 든 교사는 연령이 많거나 이수 학점이 적거나 경제 관련 학과를 나온 경우가 많았다. [경제]의 경우에는 이수한 학점이 많을수록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경제 관련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들었다. [상업 경제]의 경우에는 소도시일수록 본인의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여성일수록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소도시이거나 이수 학점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표Ⅲ-16>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에 따라 경제 관련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로짓 분석

		성	연령	교직경력	도시규모	이수학점	출신학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0.065	0.201	-0.133	0.366**	0.144	0.488
	본인의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1.077**	-0.257	0.126	-0.383	-0.451*	-0.737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0.158	-0.344	0.257	-0.082	-0.076	0.095
	적절한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하여서	-0.085	-0.151	0.035	-0.056	-0.009	-0.023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아서	-0.119	0.201	-0.201	-0.156	0.094	-0.387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아서	-0.004	0.443*	-0.090	0.010	-0.511** *	0.707**
경제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0.014	-0.085	-0.132	0.235	0.547**	-0.031
	본인의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0.004	0.158	-0.101	-0.048	-0.174	0.346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0.025	-0.598	0.197	0.167	0.133	0.295
	적절한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하여서	-0.017	0.087	-0.061	-0.172	0.186	0.528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아서	-0.011	0.593	-1.209	0.492	-0.757	15.964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아서	-0.006	-0.156	0.173	-0.118	-0.148	0.597

생활 경제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0.002	0.317	0.126	-0.494	-0.189	0.494
	본인의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0.010	-0.167	0.162	-0.235	-0.455	0.328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서	-0.583	0.913	-0.250	0.344	0.417	16.133
	적절한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하여서	-0.027	-0.660	0.698	-0.200	0.464	-1.290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아서	-0.184	0.465	-0.216	-0.309	0.390	0.114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아서	0.007	0.062	0.072	-0.159	0.423	-1.102
상업 경제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0.857	-0.131	0.150	-0.034	-0.297	0.778
	본인의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0.659	-0.001	0.306	-0.856*	0.096	-0.106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서	-2.197*	-0.611	0.799	1.064	-0.112	16.456
	적절한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하여서	-0.241	-0.343	0.977*	0.127	0.042	-0.439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아서	-0.036	-0.282	0.345	-0.552*	0.943***	-0.466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아서	0.005	0.469	-0.089	-0.512	-0.099	1.362
국제 경제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0.823	0.212	-0.553	-0.451	0.536	-0.796
	본인의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14.281	0.286	-13.440	-1.569	-0.217	15.165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서	-3.443	-30.418	30.504	-14.154	-1.234	-29.148
	적절한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하여서	-0.389	0.011	-0.065	-0.377	-0.651	-0.203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아서	0.014	0.281	-0.370	-0.502	-0.024	0.531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아서	-0.002	-0.872	0.429	-0.499	0.530	-0.671

주 1) 계수가 (+)일 경우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직경력이 길수록, 대도시일수록, 이수 학점이 많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일수록 해당 지표에 해당함을 의미.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에 따른 경제 관련 교과서 분량에 관한 의견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는 <표Ⅲ-17>과 같다. [고등학교 사회]의 경우 이수학점이 적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닐수록 분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소도시일수록 분량이 매우 많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대도시일수록 분량이 매우 적다는 의견이 많아 대조를 보였다. [경제]의 경우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분량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도시일수록,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분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생활경제]의 경우 교직경력이 길수록 분량이 많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연령이 많거나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분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상업경제]의 경우에는 생활경제와는 대조적으로 교직경력이 길수록 분량이 적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분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Ⅲ-17> 고등학교 교사의 배경에 따른 경제 관련 교과서 분량에 관한 의견에 대한 로짓 분석**

		성	연령	교직경력	도시규모	이수학점	출신학과
고등학교 사회	매우 많다	0.000	-0.102	-0.288	-1.066***	-0.158	-0.480
	많다	-0.126	0.003	-0.288	-0.121	-0.144	0.154
	적절하다	0.042	0.097	-0.097	-0.112	-0.291***	-0.416*
	적다	-0.026	0.100	-0.048	-0.112	-0.059	0.405
	매우 적다	-0.005	0.022	0.051	1.021***	0.503	-0.307
경제	매우 많다	-0.020	-1.038	0.757*	0.026	0.596	1.033
	많다	-0.018	-0.304	0.083	0.156	0.285	0.687
	적절하다	-0.010	0.285	-0.117	0.273*	0.387***	0.231
	적다	-0.002	-0.246	0.114	-0.066	0.072	0.706
	매우 적다	1.043	-0.492	-0.431	-1.322	108.865	13.962
생활경제	매우 많다	-36.886	12.746	-0.050	35.768	-0.202	14.283
	많다	-0.020	-1.052	1.023**	-0.340	0.282	-0.320
	적절하다	-0.630	1.069**	-0.157	0.169	0.694**	-0.856
	적다	6.957	-1.185	0.968	14.383	691.175	13.057
	매우 적다	na	na	na	na	na	na
상업경제	매우 많다	-12.644	-11.580	-10.210	-0.424	13.738	12.402
	많다	-1.439*	0.309	0.419	-0.238	0.325	0.446
	적절하다	-0.149	-0.110	0.328	-0.220	0.572**	0.159
	적다	-0.448	-1.234	1.776***	-0.050	0.533	-1.324
	매우 적다	0.005	-0.242	0.547	-0.524	-0.579	15.643

주 1) 계수가 (+)일 경우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직경력이 길수록, 대도시일수록, 이수 학점이 많을수록,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일수록 해당 지표에 해당함을 의미.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국제경제는 응답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

#### IV. 결론

성별, 연령, 출신학과 등 사회과 교사의 배경이 담당 수업, 수업 담당 동기, 어려움 느끼는 단원 등 교사의 경제 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chi^2$  검정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닌 교사 중 53.7%는 1-2과목을 수강하는 데 그치고 있고 이들 중 72.1%는 교사 간 수업 시수 배분 과정에서 경제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경제 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경제적 소양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담당 과목 및 시수 배정에 있어 경제 교육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로짓 분석 결과를 보면 교직 경력이 짧거나 경제 관련 과목 이수 학점이 적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사회]를 담당하지만 경제 관련 과목 이수 학점이 많거나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일수록 [경제]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경제 관련 과목 이수 학점이 많거나 경제 관련 학과 출신일수록 학부 전공과 일치하여 경제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경제 교육을 위한 경제적 소양을 갖추는 데는 사범대학과 경제 관련 학과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충실히 이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등학교 사회]의 경우 여성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 단원을 가르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외 담당 과목, 경제 관련 과목 담당 이유, 수업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교사가 경제 과목을 기피한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서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제교육협의회(2007).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
-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교원인식 실태와 시사점』 .
- 최병모 · 김진영 · 조병철 · 안상환(2004). “세계화 ·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경제의식 및 의견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1권 1호, pp. 51-81.
- 허인숙 · 최병모 · 김정호(2005).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의 경제교육 담당교사들의 경제인식 능력 및 경제의식 조사 연구”, 『중등교육연구』, 제53권 2호, pp. 277-312.
- Allgood, S. & Walstad, W. B.(1999). “The Longitudinal Effects of Economic Education on Teachers and Their Student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30, No. 2, pp. 99-111.
- Bosshardt, W. & Watts, M.(1990). “Instructor effects and their determinants in precollege economic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1, No. 3, pp. 265-271.
- \_\_\_\_\_ (2005). “Teachers’ undergraduate coursework in economics in 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36, No. 4, pp. 400-406.
- Dills, A. K. & Placone, D.(2008). “Teacher Attitudes and Teacher Knowledge in Economic Education”, mimeo.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090639>
- Hermanowicz, H. J.(1991). "Recommendations for Teacher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Reform Movement" in W. B. Walstad & J. C. Soper(eds.).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the Schools*,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pp. 164-179.
- Marlin, J. W. Jr.(1991). "State-Mandated Economic Education, Teacher Attitudes, and Student Learning",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2, No. 1, pp. 5-14.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Studies Teachers' Background on their  
Attitudes to Economic Education**

**Jang, Kyungho (Inha University)**

**Hahn, Kyungd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Kyungm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social studies teachers' background on their attitudes to economic education at secondary schools in Korea. We consider sex, age, career, city size, credit hours for economics, and undergraduate department as their backgrou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economic education, we consider only social studies teachers' attitudes to economic education at secondary schools in Korea using the survey data in 2007.

We found that the number of economics class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eachers' majors at undergraduates. Most teachers with economics majors took at least three economics classes at undergraduates while most teachers with non-economics majors took one or two economics classes only. We also found that the teaching subje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eachers' majors at undergraduates. Teachers with economics majors tend to teach economics classes voluntarily, but those with non-economics majors tend to teach economics chapters of social studies classes during a process of distributing classes to meet obligatory time for teaching. We conjecture that teachers with non-economics majors teach economics-related classes less voluntarily as they achieve inadequate economic literacy for secondary economic classes due to insufficient credit hours for economics classes. On th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thoughts that female teachers have a tendency to avoid teaching economic classes, we found that sexual status affects their attitude to teach social studies classes but not economics classes.

**Key Words: Survey on the Economic Education, Secondary Economic Education, Social Studies Teachers, Logit Analysis**

원고접수: 2008. 10. 31. 심사통과: 2008. 12. 20.

장경호: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음. 시계열분석, 통화금융 및 경제교육에 관심이 있음. [kjang@inha.ac.kr](mailto:kjang@inha.ac.kr)

한경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음. 실험경제학 및 경제교육에 관심이 있음. [khahn@hufs.ac.kr](mailto:khahn@hufs.ac.kr)

김경모: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음. 경제교육과 사회과교육에 관심이 있음. [kmkim@gnu.ac.kr](mailto:kmkim@gnu.ac.kr)